

釜山市 青少年의 飲酒行爲에 관한 研究

- 社會心理的 Model 에 의한 分析 -

Adolescent Drinking Behaviors in Pusan City : An Analysis on the Sociopsychological Model

고 정 자 *
Ko , Jung Ja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socio-psychological process of adolescent drinking behaviors. A total 1,732 high school students in Pusan city were studied by the questionnaire from May to July, 1985. A structural model based on review of the literature was examined in order to test the following three hypotheses: (1) sociocultural and environmental impact on the adolescent belief system for drinking, on drinking situations, and on experiences of deviation, (2)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 belief system, drinking situations, and experiences of deviation, and (3) impact of antecedent variables on adolescent drinking levels. All hypotheses were supported by the data. The important outcomes were discussed as follows:

1. Because interpersonal factors were influential for the adolescent belief system concerning drinking, public drinking education through mass communication or drinking education in the curriculum were recommended. In addition to sex variables, friends' drinking and sibling's drinking were shown to have a positive impacts on drinking situations. Also, adolescent self-reported parents' views on drinking had significant effects. Because adolescent deviant experiences were generally affected by environmental factors, it is recommended that positive extra-curricular activities at both home and school should be investigated.
2.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 belief systems, drinking situations, and deviant experiences. However, adolescent drinking behaviors in supervised situations had weak correlations with their belief systems and deviant behaviors.
3. Adolescent drinking levels were remarkably influenced by drinking behaviors in unsupervised situations. Because it is difficult to control actual adolescent drinking behaviors in unsupervised situations, it is important to fortify their belief system with continuous education programs.

* 동아대학교 가정 관리학과 조교수

I. 序 論

一般的으로 우리나라에서 青少年이라면 中學校부터 大學卒業前까지의 齊은이를 일컫는 것으로 이들 人口는 80年 現在 전체의 2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人口의 증가와 함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青少年白書, 1985). 우리나라의 少年法 第4條에 의하면 非行青少年의 범위로서 犯罪少年¹⁾, 觸法少年²⁾, 虞犯少年³⁾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년경찰의 轉導對象으로는 불량행위소년, 요보호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그중 불량행위소년은 20세 미만의 少年으로 음주, 흡연, 흥기소지, 싸움, 부녀회통, 관람금지 극장의 출입 등으로 자기 또는 他人의 덕성을 해치는 行爲를 하는 少年을 말하며 보통 풍기문란행위 소년을 말한다 (表申洙, 1981). 1985年度 青少年白書를 보면 1984年度 불량행위소년은 총 297,828명으로 전체 青少年의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類型別 狀況은 흡연 (25.1%)과 음주 (16.3%)가 전체 41.4%를 차지하고 있다. 현 少年非行의 추세를 본다면 이러한 행위는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음주는 青少年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社會化 과정에서一般的으로 수용되고 있는 설정이다. 음주자체에 문제성이 대두되기 보다는 거기에 수반된 불량행위와 복합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 더 큰 問題性이 있는 것이다 (青少年白書, 1985; 민병근, 이길홍, 1979). 이와 같이 青少年들의 음주행위가 社會的問題로 부상하게 된 것은 青少年의 음주율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외에도 社會變動과 함께 青少年들의 음주행위를 社會構造的인 측면에서 分析하려는 움직임에도 原因이 있다 (민병근, 최상진, 이길홍, 1978). 또한 기성세대의 行動을 모방하고자 하는 態度와 사회규범에 대한 저항의식 등의相反된 가치체계 속에서 욕구좌절과 충동성을 음주행위로 전환시킬 가능성도 많다는 점이다. 더욱기 전통적인 家族制度의 붕괴, 父母의 권위 약화, 매스컴 영향의 비대화 등, 家庭의 통제력이 弱化됨에 따라 青少年들이 非行文化圈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그들의 충동성을 자극하는 매체로서 음주는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음주행위를 저지할

- 1) 犯罪少年: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少年으로 諸刑罰法에 저촉되는 犯罪를 범한 者이며 犯罪의 種類는 刑法犯 전부를 말한다.
- 2) 觸法少年: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少年으로 諸刑罰法에 저촉하는 行위를 한 刑事實務의 能力이 없는 者, 즉 少年法에 저촉되는 行위를 한 者를 말한다.
- 3) 虞犯少年: 諸刑罰法에 직접 저촉되는 위반행위는 하지 않았으나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少年으로서 그의 성격 또는 환경으로 기타 일정한 事由, 즉 보호자의 적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든가, 정당한 理由 없이 가출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德性을 해롭게 하는 行위를 하는 성벽이 있는 등, 장래 刑罰法에 저촉될 行위를 할 우려가 있는 少年을 말한다.

수 있고 음주의 행동에 관한 올바른 知識을 제공할 수 있는 教育프로그램은 中等學校 교과과정에서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근본적인 對策이 될 수 없는 음주금지만을 青少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本研究는 青少年들의 음주행위에 대한 社會心理的 要因들을 分析하고 음주행위의 形成過程을 모색하여 青少年들의 음주에 대한 實質적인 예방책을 제시하는데 意義를 두고 있다.

II. 理論的 背景 및 關聯研究 考察

음주행위는 일반적으로 人性과 社會文化的要因의 두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전자는 各個人의 內的 要因에 의하여 음주행위를 分析하는 것으로 성격적 특질, 態度, 動機, 욕구, 관심 및 충동 등이 여기에 속한다. McClelland와 Davis (1972)는 이 心理學的 理論에 근거하여 男性은 좀 더 강력한 힘을 느끼기 위해 음주한다고 結論을 내리고 있고 Wilsnack (1973) 역시 社會的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음주하는 것이 男性들에게 일반적이라고 제시하였다. 의존이론 (dependency theory)은 음주가 유아기적 구강의존욕구를 만족시켜준다고 해석하고 있다 (McCord and McCord, 1960). 즉 모든 사람들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의존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의존욕구는 습관적 음주자 뿐 아니라 경음주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社會文化的 理論은 社會構造的 觀點, 即 社會的·經濟的·文化的 環境에 따른 行動의 分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Maddox

와 Mc Call (1964)은 社會文化的으로 構造화된 行動양식으로서 음주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社會의 青少年들은 成長過程중에 이러한 음주문화에 노출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 社會文化的 理論은 크게 두 가지 觀點으로 分類되어 진다; 狀況的 觀點과 對人關係的 觀點.

狀況的 觀點에서 살펴 본 個個人의 음주행위는 알콜성 음료의 구입용이성, 음주에 대한 社會的 승인정도, 또래집단의 비행접촉 및 주위 다른 음주자의 존재여부 등의 環境的 要因에 의하여 해석되고 있다. 한편, 對人關係的 觀點에 의하면, 음주행위는 社會的相互作用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으로 個個人이 속하고 있는 의미집단 (significant group)의 社會文化的 규범에 의한 制度化된 行動樣式을 반영하고 있다 (Maddox, 1964).

이상과 같이 음주행위에 대한 개괄적인 理論을 간단하게 기술하였는데 本研究는 특히 行動決定의 社會心理的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Bandura (1977)의 社會學習理論 (Social learning theory)에 의하면 人間의 行動은 社會的 자극에 의하여 決定되며 強化의 結果로 계속적인 行動이 形成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個個人이 처해있는 狀況속에서 보상이나 처벌에 의해 강화된 경험이 行動結果에 관한 특정한 믿음 체계를 구축하며 이것이 人間의 行動을 決定한다는 것이다 (Hjelle and Ziegler, 1981; Rogers, 1968). 또한 個個人의 環境은 人性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Miscovich, 1973). Fessor와 Fessor (1977)에 의하여 제시된 바 있는 위의 理論의

model은 McAlister 등(1984)이 구체화하고 있다. 도표 1은 個個人이 치해있는 환경조건, 行動結果에 대한 믿음, 人生,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해지는 行動과의 직접·간접적인 相互作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좀 더 폭넓은 음주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本研究는 Zucker (1979)가 設定한 model 를 참고로 의미집단의 영향(Maddox, 1964), 狀況的要因(Kong, 1984), 非行要因(Snow, 1975 ; Sommer, 1965) 등을 첨가하여 도표 2에서와 같이 최종적인 음주행위에 관한 model을 보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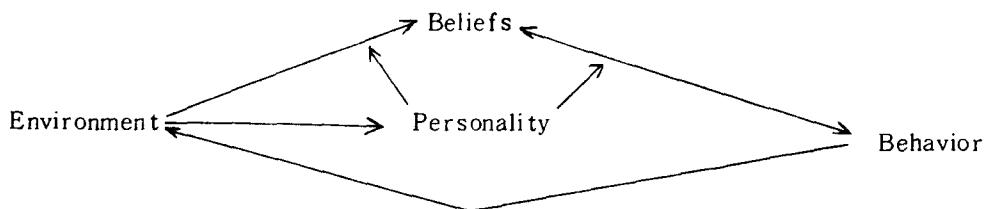


Figure 1. Model of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Environment, Beliefs, Personality, and Behavior By McAlister et al.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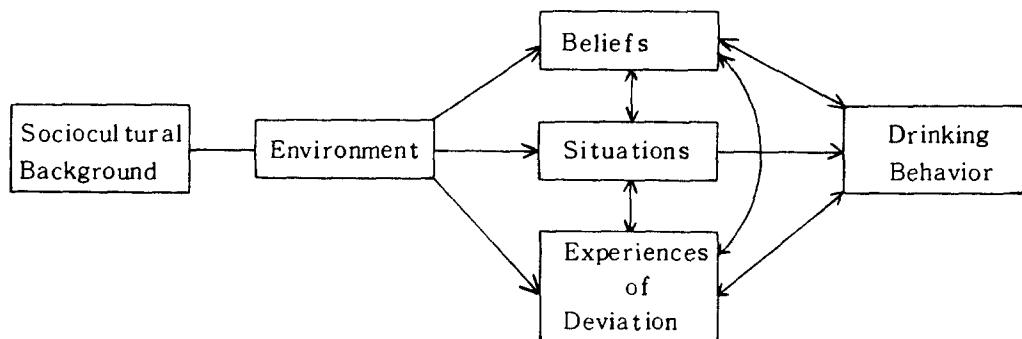


Figure 2. Causal Model Concerning Drinking Behavior

이상과 같은 理論的背景을 기초로 本研究에서 검증하려고 하는 假說은 다음과 같다 : (1) 青少年들의 基本的인 社會文化的背景과 環境要因은 음주에 대한 그들의 믿음 체계와 음주상황 및 非行經驗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음주에 대한 青少年들의 믿음 체계와 음주상황, 非行經驗 간에는 서로 正의인 相關關係를 갖고 있을 것이다. 즉 음주

에 관한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青少年 일수록 비통제적 상황에서 음주를 하지 않을 것이고 結果的으로 非行에 접할 기회도 적을 것이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反對의 結果를 나타낼 것인가는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青少年들의 음주는 하나의 社會化現象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青少年들의 음주행위는 인과

모델에서 나타난 각 단계별 선행변수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동안 飲酒行爲에 관한 調査分析 論文은 다음 몇 가지 類型으로 大別할 수 있다.

飲酒는 身體的 精身的 社會文化的으로 人間生活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들어 飲酒量이 每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社會的 問題로 대두되고 있는 實情이다. 미국에서는 1970 年 의회에서 알코올 중독 예방과, 치료 개생법을 통과시켰고 알코올 중독에 대한 國家制度도 마련하여 研究와 치료方法을 開發시키고 있는 (Mead and Metraux, 1980) 반면 韓國에서는 아직 青少年 飲酒에 관한 研究가 미비한 實情에 있다.

민병근·이길홍 (1979)은 韓國 青少年의 飲酒頻度 및 飲酒양상을 分析하기 위해 精身醫學的 면접 및 質問紙를 使用하여 調査한 結果 韓國男性의 16~40%, 女性的 3~6%가 習慣的 過飲을 하고 있으며 青少年 飲酒率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都市人일수록 그리고 問題學生 일수록 높았으며 青少年의 38.6%가 心的갈등 해소를 위해 過飲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飲酒類型은 서울은 폐락형·우울형 등 情緒的 問題 처리 미숙으로, 農村 問題學生은 공격형, 철회형 등 공격심처리가 미숙하여 過飲하며, 過飲으로 인해 야기된 問題로 많은 수요가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기 (1983)는 757 名의 소년원생을 對象으로 非行青少年의 飲酒頻度를 파악하고 飲酒와 非行과의 관계를 알아 본結果 非行青少年의 飲酒率은 62.3%였으며 취중犯行을 한 경우는 24.2%였고 강력범이나 폭력범일수록 취중犯罪가 많았다. 강력범

및 폭력범등 대인범일수록 習慣的 飲酒를 하였고, 야간절도, 주간절도, 사기와 같은 재산범인 대물범일수록 飲酒率이 낮았다.

Keller (1974)는 早期 青少年 飲酒가 성격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어 情緒障礙를 일으킨다고 하였고 Mead (1980)는 女性飲酒의 경우 지루함, 외로움보다는 기분전환方法이나 통제하는 사람이 없을 때 飲酒傾向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공미혜 (1984)는 青少年들의 環境요소에 따른 飲酒水準과 飲酒行動間의 관계를 調査하기 위해 (1) 青少年 飲酒水準과 부모의 준거 (2) 비통제 상황에서의 飲酒水準과 飲酒行動 (3) 통제 상황에서의 飲酒水準과 飲酒行動간의 관계를 가설검정하여 그 결과 飲酒에 대한 父母의 준거는 男子보다 女子의 飲酒水準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비통제 상황에서의 빈번한 飲酒 經驗을 가진 소년소녀는 過飲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된 상황에서의 青少年 飲酒水準은 飲酒行動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년감별소 (1985) 研究에 따르면 飲酒經驗이 있는 青少年은 男子의 경우 81年 48%에서 85年 64.4%로 女子는 81年 35.4%에서 85年 40.2%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초 飲酒연령은 15 歲前의 飲酒가 男子는 81年 25.9%에서 85年 34.2%로 女子는 81年 14.9%에서 85年 40.5%로 나타나 점차 飲酒연령이 낮아지는 傾向을 보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飲酒者는 每年 증가하고 있으며 青少年 犯罪가 직접·간접으로 飲酒와 연관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青少年의 飲酒를 예방할 수 있도록 飲酒의 有害

性에 대한 정규 教育프로그램과 건전한 여가活動 方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II. 研究方法

1. 資料蒐集 및 變數의 測定

資料는 釜山市 所在의 13개 高等學校 在學生들로부터 1985年 5月에서 7月에 걸쳐 蒐集되었다. 資料의 세부 구성요소는 표 1에 제시되고 있다. 說問紙의 전체 문항 내용은 크게 青少年들의 社會文化的 背景, 非行經驗, 과외활동 및 人性, 음주, 흡연에 관한 것들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문항수는

120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本研究는 青少年들의 음주에 관한 社會心理的 要因들을 分析하고자 하였으므로 여기에 必要한 變因들만 발췌설정하였다.

理論的 背景에서 제시한 因果 model에서 첫번째 단계인 社會文化的 背景에 관한 變因은 性別(SEX), 學校系列(TYPSCH), 學年(GRADE), 성장지(GRAW), 家族의 社會經濟的 地位(SES), 宗教(RELIG), 學校成績(GPA)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家族의 社會經濟的 地位는 주생계 부담자의 교육수준과 직업으로 부터 산출된 것으로 (Globetti ; 1964 ; Kong, 1984) 3 등급으로 分類되었다.

Table 1. 조사대상의 구성

SEX	TYPES OF SCHOOL	GRADE
Female 458 (26.5%)	General	471 (27.2%)
	Commercial	399 (23.0%)
Male 1,274 (73.5%)	technical	528 (30.5%)
	artical	334 (19.3%)
1st Year	616 (35.3%)	
2nd Year	533 (30.8%)	
3rd Year	583 (33.7%)	

두번째 단계인 環境的 要因은 크게 對人的 영향과 사회적응도, 과외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對人的 영향에 관한 변수로는 친한 친구의 음주여부(FRODRK), 父의 음주여부(FADRK), 母의 음주여부(MODRK), 남형제의 음주여부(BRODRK), 여형제의 음주여부(SISDRK), 青少年들의 음주에 관한 父母들의 觀點(PAVIEW), 음주에 관한 父母들의 규범여부(PARULE)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응도는 방과후 青少年

들이 친구와 함께 보내는 횟수(FREFRD) 데이트 횟수(DATE), 인기도(POPUL), 사교성(SOCIA) 등의 항목으로 测定하였고, 과외활동의 變因으로는 서클활동여부(CIRACT), 캠페참가여부(CAMPACT) 등을 設定하였다. 여기서 각 항목당 누락된 응답은 Missing Data로 취급하였으나 특히 資料의 一般性을 부여하기 위하여 부모나 형제자매, 친한 친구의 음주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누락된 응답과 기타로 표시된 것은 금주자로 규정하여 재조정하였다.

이러한 方法은 McAlister 등의 研究(1984)에서도 使用되고 있다.

세번째 단계는 青少年들의 음주에 대한 믿음체계, 음주상황 및 비행경험 등의 3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음주에 대한 믿음체계는 여러각도에서 测定되었는데, 그 세부 사항들로는 음주후 사고처벌에 대한 관점(DRKPN), 成人들의 음주에 대한 青少年들의 관점(ADTDRK), 같은 또래 青少年의 음주에 대한 관점(ADLDRK)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주상황에 관한 變因은 통제상황과 비통제상황으로 세분되어 있다. 통제상황으로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음주하는 경우(DRKDIN)이고 비통제상황으로는 成人不在의 친구파티에서 음주하는 경우(DRKPAR), 휴일에 친구들과 음주하는 경우(DRKHOL), 평일 방과후 음주하는 경우(DRKEXT), 혼자 음주하는 경우(DRKALON), 특별한 날에 음주하는 경

우(DRKSP) 등이 속해있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같이 소년비행의 개념은 복합적이다. 따라서 本研究에서 非行으로 간주한 행위로는 금지영화관람(MOVIE), 도박(GAMBLE), 흥기소지(ARMS), 성경험(SEXUA), 유홍장 출입(DANCECLB), 패싸움(FIGHT) 등, 주로 불량행위만을 포함하였다. 여기서도 각 항목당 누락된 대답은 통계처리에서 제외되었다.

마지막 단계의 青少年들의 음주행위로서 음주수준(DL)은 Q-F (Quantity-Frequency) 分類法(Mulford and Miller, 1960; Maddox and Williams 1968; Rachal et al., 1975; Kong, 1984)에 의거하여 금주자(abstainers), 경음주자(light drinkers), 보통음주자(moderate drinkers), 중음주자(heavy drinkers)등의 네 영역으로 나누었다. 對象青少年들의 음주수준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Table 2. 청소년의 음주수준

Drinking Levels *	Categories **	Numbers	Percent (%)
0	abstainers	1120	64.7
1	light drinkers	122	7.0
2	moderate drinkers	369	21.3
3	heavy drinkers	121	7.0
Total		1732	100.0

* See Rachal et al. (1975) Appendix E. for computational procedure.

** Categories are classified by Rachal et al. (1975 : 35) and adapted by Kong (1984).

2. 分析方法

假說에서 제시된 model에 의거 하여 종속 변수상에 있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評價하여 위한 方法으로 標準化된 회귀상관계수 (β)를 分析하였고 유의차 검증은 .05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또한 각 變因間 相關關係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使用하였다.

本 研究의 變因中 命名尺度로 分類되었던 항목들은 Dummy Variables로 처리하여 회귀분석방법으로 처리하였다.

IV. 結論 및 解釋

1. 青少年들의 음주에 대한 믿음체계, 음주상황 및 非行經驗에 있어서 社會文化的·環境的 要因의 영향

1-1 青少年들의 음주에 대한 믿음체계에 있어서 社會文化的·環境的 要因의 영향

靑少年들의 음주에 대한 믿음체계는 세 항목으로 测定되었는데 表3의 첫째 칼럼은 음주후 사고처벌에 대한 觀點(DRKPN)이고, 둘째 칼럼은 成人們의 음주에 대한 觀點(ADTDRK), 세째 칼럼은 青少年들의 음주에 대한 觀點(ADLDRK) 등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社會文化的 要因중에서는 性別(SEX)과 宗教(RELIG)등이 有意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男學生일 경우에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체계를,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는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체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分析될 수 있다. 環境

要因중에서는 비교적 많은 變因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CAMPACT, FREFRD, DATE, FRDDRK, BRODRK, DAVIEW), 특히 친한 친구의 음주여부(FRDDRK)와 青少年들의 음주에 대한 父母의 觀點(PAVIEW)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즉 青少年들의 음주에 대한 믿음체계는 과외활동이나 對人的인 要因에 따라 正的인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어서 個人的인 變因보다는 他人을 의식하고 있는 社會心理的 要因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本 理論的 背景에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青少年들의 社會文化的·環境的 要因은 음주에 대한 그들의 믿음체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첫번째 가설은 分析된 資料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종속변수인 음주에 대한 믿음체계는 선행변수에 의하여 각각 4.6% (DRKPNT), 11.1% (ADTDRK), 26.6% (ADLDRK) 수준에서 說明되고 있으며 모두 통계학상 有意한 結果이다.

1-2 各 음주상황에 있어서 社會文化的·環境的 要因의 영향

表4는 各 음주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社會文化的·環境的 要因들을 열거하고 있다. 첫번째 칼럼은 어른들이 불참하는 친구들과의 파티에서 음주하는 경우이고(DRKPAR), 두번째 칼럼은 휴일에 친구와 몰려다니며 음주하는 경우(DRKHOL), 세번째 칼럼은 방과후에 음주하는 경우(DRKEXT) 네번째 칼럼은 혼자 음주하는 경우(DRKALON), 다섯번째는 생일날이나 특별한 날에 음주하는 경우(DRKSP)로 여기까

Table 3.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믿음체계에 있어서 사회문화적·환경적 변인의 표준화된 회귀상관계수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DRKPNT (β)	ADTDRK (β)	ADLDRK (β)
Sociocultural Background Variables	SEX	.047 **	.076 **	.097 **
	TYPSCH	-.030	.129 **	.006
	GRADE	.023	.052 **	.015
	GRAW	.010	.014	.013
	SES	.012	.033 *	.009
	RELIG	-.016	-.036 **	-.041 **
	GPA	-.006	-.004	-.073 **
	CIRACT	.050 **	.012	.012
	CAMPACT	-.051 **	.025	.057 **
	FREFRD	-.073 **	.028	.114 **
	DATE	-.073 **	.032	.106 **
	POPUL	.020	.032	-.037 **
	SOCIA	.011	.004	-.005
Environmental Variables	FRDDRK	-.041 *	.150 **	.203 **
	FADRK	-.051 **	.031	.203 **
	MODRK	.010	.017	.020
	BRODRK	-.007	.060 **	.037 **
	SISDRK	-.022	-.014	.025
	PARULE	.049 **	-.018	-.014
	PAVIEW	-.103 **	.125 **	.208 **
	R ²	.046 **	.111 **	.266 **
	F-Value	3.403	8.826	.500
				D.F = 20 / 1410

* p < .05

** p < .01

지는 비통제상황에 속하고, 마지막 칼럼은 저녁식사때 식구들과 함께 음주하는 경우로 (DRKDIN) 유일한 통제상황에 속하고 있다.

社會文化的 變因중에서는 어느 상황에서나 性別(SEX)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學年別(GRADE)도 有意한 正의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은 青少年의 음주가 性別과 연령에 따라 허용되는 社會學習의 혹은 社會化의 과정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또한 집안의 社會經濟的 地位(SES)가 높아짐에 따라 青少年의 음주빈도도 영향받고 있는데 이는 음주를 容易하게 하는 용돈의 양과도 상관이 있을 것으로 料된다. 학교성적(GPA)은 친구들이 동행되는 社會的인 비통제 음주상황(DRKPAR, DRKHOL, DRKSPE)에서는 有意한 負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즉 학교성적에 반비례하여 青少年의 음주빈도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環境的 要因중에서는 캠핑참가여부(CAMPACT)와 데이트 횟수(DATE)등이 비통제 음주상황에 모두 有意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친구와 보내는 저녁 횟수(FREFRD)와 친한 친구의 음주여부(FR-DDRK)는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현저한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青少年期에 있어서 친구집단의 重要性을 다시 확인해 주는 結果이다. 친구 이외의 對人的 要因으로는 남형제의 음주여부(BRODRK)와 여형제의 음주여부(SISDRK)를 들 수 있다. 보다 권위적인 成人集團에 속하는 父母의 음주여부에 따른 영향보다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 형제자매의 음주여부에

비례하여 青少年들의 음주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紅미있는 事實은 남형제보다는 여형제의 음주여부가 青少年들의 음주에 더 큰 자극을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한 정확한 해석은 내릴 수 없지만, 社會的으로 女性의 음주는 아직까지 금지된 行動으로 취급되는 바, 여형제의 음주는 青少年들에게 보다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음주관념을 지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듈다. 이러한 假說은 저녁식사때 식구들과 함께 음주하는 상황(DRKDIN)에서 볼 때, 여형제의 음주여부가 가장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서도 유추될 수 있다. 즉, 여형제의 음주여부에 따라 음주행위가 비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형제의 음주를 허용한다는 것은 그 家族構成員이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그의 음주에 대한 父母의 규범여부(PARULE)는 成人們이 참석하고 있는 통제상황인 경우(DRKDIN)에 비교적 有意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기타 비통제음주상황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青少年의 음주에 대한 父母의 관점(PAVIEW)은 青少年 스스로가 응답한 父母의 觀點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父母들의 순수한 觀點이라기 보다는 青少年들의 觀點이 일부 투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青少年들이 표시한 父母의 觀點(PAVIEW)이 그들의 각 음주상황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사료된다.

各各의 음주상황은 선행변수들로부터 31.8%(DRKPAR), 40.2%(DRKHOL),

Table 4. 음주상황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환경적 변인의 표준화된 회귀상관계수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DRKPAR (β)	DRKHOL (β)	DRKEXT (β)	DRKALON (β)	DRKSPE (β)	DRKDIN (β)
Sociocultural Background	SEX	.107 **	.123 **	.100 **	.110 **	.117 **
	TYPSCH	.006	.006	.026	— .025	.003
	GRADE	.049 **	.046 **	.042 **	.028	.095 **
	GRAW	— .024	— .017	.021	.009	.014
	SES	— .036 **	— .006	.054 **	.055 **	— .020
	RELIG	.006	.021	.003	.002	— .011
	GPA	— .043 **	— .041 **	— .018	— .011	— .035 **
	CIRACT	.029 *	— .014	.009	— .014	.019
	CAMPACT	.084 **	.112 **	.101 **	.070 **	.144 **
	FREFRD	.133 **	.146 **	.184 **	.171 **	.124 **
	DATE	.094 **	.187 **	.127 **	.091 **	.090 **
	POPUL	.069 **	.030	.022	.006	.069 **
	SOCIA	— .027	— .006	— .013	— .016	— .026
	FRDDRK	.268 **	.234 **	.174 **	.113 **	.256 **
Environmental Variables	FADRK	.060 **	.011	.005	.030	.035 **
	MODRK	.022	— .005	.007	.005	— .001
	BRODRK	.011	.083 **	.046 **	.049 **	.045 **
	SISDRK	.072 **	.062 **	.059 **	.109 **	.055 **
	PARULE	.016	.006	— .046 **	.029	.033 **
	PAVIEW	.056 **	.082 **	.122 **	.046 **	.094 **
	R ²	.318 **	.402 **	.301 **	.203 **	.376 **
F - Value		32.910	47.333	30.379	17.479	42.523
						8.144 D.F. = 20 1410

* p < .05

** p < .01

30.1% (DRKEXT), 20.3% (DRKAL-ON), 37.6% (DRKSPE), 10.4% (DRKDIN) 수준에서 통계학상有意하게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分析된 資料에 의하여 음주상황에 있어서 社會文化的·環境的要因의 영향이 입증되고 있다.

1-3 非行經驗에 있어서 社會文化的·環境的要因의 영향

青少年들의 불량행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社會文化的·環境的要因들은 表5에 열거되고 있다. 불량행위의 세목으로서는 첫째 칼럼이 금지영화관람(MOVIE), 둘째는 도박(GAMBLE), 세째는 흥기소지(ARMS), 네째는 성경험(SEXUA), 다섯째는 유홍장 출입(DANCECLB), 여섯째는 패싸움(FIGHT)으로 分類되었다.

社會文化的要因 중에서는 역시 性別(S-EX)이 가장 현저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變因이며, 그외에도 學校系列(TYPSCH), 집안의 社會經濟的地位(SES), 學校成績(GPA)등이 有意한 變因이 되고 있다. 즉, 實業系學校에 다니고 있는 男學生으로 中上流層에 속하고 학교성적이 저조할 수록 非行의 經驗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 요소 뿐만 아니라 自他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없는 좌절감이 집안의 경제력과 합치하여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青少年의 非行을 방지하는 希望의 인 방어기제로서 宗教의 역할을 들 수 있다. 本 資料에서도 宗教(RELIG)는 각 비행 경험에 負的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입증하고 있다.

環境的要因중에서는 캠핑 참가여부(CAMPACT), 친구와 함께 보내는 저녁 횟수(FREFRD), 데이트 횟수(DATE), 친한 친구의 음주여부(FRDDRK) 등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고 있어 친구 집단과個人의 非行經驗간에 밀접한 相關關係를 說明해 준다.

分析된 資料에 의해 青少年의 非行經驗도 社會文化的·環境的으로 有意하게 영향받고 있음이 나타났다 (R^2 참고).

그러므로 理論的 背景에서 제시되었던 첫 번째 가설은 통계학상 有意하게 입증되고 있다.

2. 음주에 대한 青少年들의 믿음체계, 음주상황, 非行經驗간의 상관관계

2-1 음주에 대한 青少年들의 믿음체계와 음주상황

여러 각도에서 살펴 본 음주에 대한 青少年들의 믿음체계와 각 음주상황간에는 表6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통계학상 有意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첫째 칼럼의 음주후 처벌에 대한 觀點(DRKPN)과 음주상황과의 負的 상관관계는 각 음주상황에서 음주빈도가 잣은 青少年일수록 음주후 사고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높은 상관관계는 또래青少年들의 음주에 대한 觀點(ADLDRK)과 음주상황간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적할 점은, 통제상황인 저녁식사때 식구들과 음주하는 경우(DRKDIN)에는 그 상관관계가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Table 5. 비행경험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환경적 변인의 표준화된 회귀상관계수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MOVIE (β)	GAMBLE (β)	ARMS (β)	SEXUA (β)	DANCECLB (β)	FIGHT (β)
Sociocultural Background Variables	SEX	.278**	.363**	.119**	.048**	.011
	TYPSCH	-.012	.066**	-.067**	-.054**	-.064**
	GRADE	.097**	.015	-.070**	-.028	.003
	GRAW	.003	.022	.012	-.030*	.015
	SES	.073**	-.041**	.000	.038**	.036**
	RELIG	-.036**	-.002	.008	-.027	-.039**
	GPA	-.014	-.053**	-.070**	-.063**	-.131**
	CIRACT	.000	.020	.038**	-.054**	-.048**
	CAMPACT	.046**	.081**	.169**	.222**	.172**
	FREFRD	.094**	.121**	.146**	.130**	.185**
	DATE	.088**	.104**	.079**	.187**	.247**
	POPUL	.016	.007	.015	.091	.059**
	SOCIA	.036**	.054**	.011	-.015	.017
	FRDDRK	.189**	.117**	.081**	.086**	.161**
Environmental Variables	FADRK	.002	.054**	.041**	.019	-.006
	MODRK	.055**	-.010	.032*	-.022	-.023
	BRODRK	.019	.054**	-.005	-.020	.031**
	SISDRK	.001	.015	.025	.035**	.000
	PARULE	-.046**	.009	-.011	.001	-.017
	PAVIEW	.025	.024	.022	.016	.019
R ²	.298**	.351**	.198**	.272**	.397**	.353**
F-Value	29.993	38.139	17.375	26.284	46.496	38.488
						D.F. = 20 1410

* p < .05

** p < .01

러한 現象은 青少年들 자신의 음주에 대한觀點에는 상관 없이, 특히 집안 어른들

이 음주를 허용하는 상황인가 아닌가에 따라 영향받는 것으로 料된다.

Table 6. 음주에 대한 믿음변인과 상황변인간의 상관계수

Situations Beliefs	DRKPNT	ADTDRK	ADLDRK
D R K P A R	-.124 ***	.245 ***	.387 ***
D R K H O L	-.149 ***	.264 ***	.414 ***
D R K E X T	-.137 ***	.184 ***	.366 ***
DRKALON	-.109 ***	.226 ***	.349 ***
D R K S P E	-.125 ***	.277 ***	.414 ***
D R K D I N	-.072 **	.125 ***	.174 ***

** $P < .01$ *** $P < .001$

2-2 음주에 대한 青少年들의 믿음체계 와 非行經驗

〈表7〉은 青少年들의 믿음체계와 非行經驗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各 變因들간에는 통계 학상 有意한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음주후 처벌에 대한 觀點

(DRKPNT)과 非行經驗간에는 負的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래 青少年들의 음주에 대한 青少年 자신들의 觀點(ADLDRK)은 非行要因과 현저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青少年들의 음주에 대한 觀點이 긍정적일 경우 非行經驗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간주된다.

Table 7. 음주에 대한 믿음변인과 비행경험간의 상관계수

Experiences of Deviation Beliefs	DRKPNT	ADTDRK	ADLDRK
MOVIE	-.131 ***	.186 ***	.308 ***
GAMBLE	-.078 ***	.193 ***	.299 ***
ARMS	-.141 ***	.159 ***	.227 ***
SEXUA	-.114 ***	.126 ***	.248 ***
DANCECLB	-.162 ***	.203 ***	.318 ***
FIGHT	-.106 ***	.162 ***	.274 ***

*** $P < .001$

2-3 음주상황과 非行經驗

〈表8〉을 보면 어떤 음주상황이든 靑少年들의 非行經驗과 현저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통제된 상황이나 비통제된 상황에 관계없이 자주 음주하는 靑少年일수록 非行經驗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타 선행연구(민병근,

이길홍, 1979)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다만 식구들과 식사때 하는 음주의 경우와 非行經驗간에는 타 음주상황에 비해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통제된 상황이 주는 靑少年들의 음주조절효과를 인식하게 한다. 물론 이것은 소극적 음주예방책으로서 근본적인 解決方法이 될 수 없다고 본다.

Table 8. 음주에 대한 상황변인과 비행경험간의 상관계수

Situations Experiences of Deviation	DRKPAR	DRKHOL	DRKEEXT	DRKALON	DRKSPE	DRKDIN
MOVIE	.361 ***	.364 ***	.275 ***	.251 ***	.376 ***	.121 ***
GAMBLE	.354 ***	.384 ***	.309 ***	.238 ***	.373 ***	.136 ***
ARMS	.320 ***	.367 ***	.336 ***	.293 ***	.363 ***	.131 ***
SEXUA	.360 ***	.471 ***	.414 ***	.339 ***	.400 ***	.204 ***
DANCECLB	.434 ***	.516 ***	.431 ***	.349 ***	.524 ***	.169 ***
FIGHT	.397 ***	.492 ***	.400 ***	.363 ***	.471 ***	.200 ***

*** P < .001

이상의 결과에서 음주에 대한 靑少年들의 믿음체계, 음주상황, 비행경험사이에 서로 正的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두번째 假說 역시 分析된 資料에 의해 확실하게 검증되고 있다.

3. 青少年들의 음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變因들

〈表9〉는 青少年들의 음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社會文化的 背景, 環境的 要因, 믿음체계, 음주상황 및 非行經驗 등의 變因들을 각 段階별로 分析한 것이다. 첫째 칼럼은

社會文化的 變因의 독자적인 영향만을 分析한 것이고, 둘째 칼럼은 社會文化的 要因과 環境的 要因이 함께 병행하여 음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째 칼럼은 因果모델상에 있는 모든 선행변인들이 음주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社會文化的 變因들이 青少年들의 음주수준에 미치는 영향(DLI)은 17.6%에서 說明되고 있는데, 그 중 현저한 正的 영향력을 보이는 變因은 性別(SEX)과 學年別(GRADE)로 나타나서 高學年的 男學生

Table 9. 음주 수준의 표준화된 회귀상관계수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D L(1) (β)	D L(2) (β)	D L(3) (β)
Socio-cultural Background Variables	SEX	.327 **	.148 **	.042 **
	TYPSCH	-.091 **	-.031 *	-.026 *
	GRADE	.191 **	.058 **	.019
	GRAW	.018	.011	.011
	SES	.072 **	.038 **	.030 **
	RELIG	-.016	-.008	-.000
	GPA	-.065 **	-.019	.025 *
Environmental Variables	CIRACT		.007	.009
	CAMPACT		.133 **	.121
	FREFRD		.162 **	.031 **
	DATE		.121 **	-.004
	POPUL		.037 **	-.003
	SOCIA		-.023	-.015
	FRDDRK		.258 **	.072 **
	FADRK		.033 **	.010
	MODRK		-.020	-.022 *
	BRODRK		.040 **	.001
	SISDRK		.050 **	.002
	PARULE		.009	.002
	PAVIEW		.062 **	-.008
	DRKPNT			.011
	ADTDRK			.042 **
	ADLDRK			.063 **
	DRKPAR			.092 **
	DRKHOL			.186 **
	DRKEXT			.018
	DRKALON			.115 **
	DRKSPE			.207 **
	DRKDIN			.001
	MOVIE			.025
	GAMBLE			.025
	ARMS			.034 **
	SEXUA			.082 **
	DANCECLB			.085 **
	FIGHT			-.009
R ²		.176 **	.401 **	.612 **
DF		7	20	35
		1423	1410	1395

* p < .05

** p < .01

DL(1) : Regression coefficients of Drinking Levels on Sociocultural Background.

DL(2) : Regression coefficients of Drinking Levels on Sociocultur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DL(3) : Regression coefficients of Drinking Levels on Full-form Model.

들일 경우 음주수준이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學校系列(TYPSCHE)과 成績(GPA)은 유의한 負的 상관이 나타나 非人文系學生으로서 成績이 낮을수록 음주수준은 높아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社會文化的 要因들이 環境要因들과 함께 회귀분석되었을 때는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DL 2) 性別(SEX)은 여전히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친한 친구의 음주여부(FRDDRK), 친구와 보내는 저녁횟수(FREFRD), 캠핑참가여부(CAMPACT), 데이트 횟수(DATE) 등, 주로 주위의 또래집단과의活動에 의하여 음주수준이 正的으로 영향을 받는 경향이다. 이 段階에서는 각 독립변수들이 青少年들의 음주수준을 40.1% 수준에서 說明하고 있다.

모든 선행변인들의 영향이 分析되는 세번째 段階에서는(DL 3) 무엇보다도 상황변인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비통제적 음주상황(DRKPAR, DRKHOL, DRKALON, DRKSPE)은 전반적으로 青少年들의 음주수준에 현저한 正的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하는 빈도가 높은 青少年일 경우, 그 음주수준 또한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非行變因 중 성경험(SEXUA), 유흥장 출입(DANCE-CLB) 등도 음주수준에 상당한 正的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 선행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青少年들의 음주 수준은 선별된 變因들에 의하여 61.2%의 有意한 수준에서 해석되고 있다.

이상으로 理論的 背景에서 제시되었던 青

少年들의 최종적인 음주행위로서 음주수준은 각 變因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세번째 假說 역시 本 資料分析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V. 結論 및 論議

本 研究는 釜山市 男·女 高等學生을 對象으로 質問紙調查法을 통하여 飲酒行爲의 社會心理的 形成過程을 分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假說을 設定하여 分析하였다.

첫째, 青少年들의 社會文化的 背景과 環境要因은 飲酒에 대한 밀음체계와 飲酒상황 및 非行經驗에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飲酒에 대한 青少年들의 밀음체계와 飲酒상황 및 非行經驗간에는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青少年들의 飲酒行爲는 인과모델에서 나타난 각 단계별 선행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다.

위 세 가지 假說은 資料分析 結果 모두 立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첫째, 青少年들의 飲酒에 대한 밀음체계 飲酒상황 및 非行經驗에 있어서 社會文化的環境的 要因의 영향.

1. 青少年의 飲酒에 대한 밀음체계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變因은 친한 친구의 飲酒여부와 父母의 飲酒에 대한 觀點등 對人的 環境要因들의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다.

2. 飲酒상황은 性別과 學年別 社會經濟的地位別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學

校成績은 부적 상관이 있었다. 더욱 현저한 것은 環境要因으로 캠핑참가여부, 데이트 횟수, 친구와 보내는 저녁횟수 등의 課外活動變因과 친구의 飲酒與否, 男·女 형제의 飲酒與否 등의 對人的 變因으로 나타났으며 飲酒에 대한 父母의 觀點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3. 非行經驗에 영향을 주는 變因은 성별이 가장 현저하며 그의 學校系列, 社會經濟的地位, 學校成績을 들 수 있으며, 環境的要因은 캠핑참가여부, 친구와 보내는 저녁횟수, 데이트 횟수, 친한 친구의 飲酒與否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어 非行經驗이 친구집단과 有意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飲酒에 대한 青少年들의 믿음체계 飲酒상황, 非行經驗간의 상관관계.

1. 또래 青少年들의 飲酒에 대한 觀點은 飲酒行爲와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統制狀況에서의 飲酒行爲와 青少年들의 믿음체계간에는 상관관계가 다소 약화되었다.

2. 飲酒에 대한 青少年들의 믿음체계와 非行經驗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 非行經驗과 飲酒行爲와는 有意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青少年들의 非行經驗은 非統制된 飲酒狀況에 비해 統制된 狀況에서 상관도가 낮게 나타났다.

셋째, 青少年들의 飲酒水準에 영향을 미치는 變因

青少年의 飲酒水準에 가장 현저한 영향을 주는 變因은 상황變因으로 非統制的 飲酒狀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環境變因에서는 친구飲酒與否, 친구와

보내는 저녁 횟수, 캠핑참가여부 등 또래집 단파의 活動이, 非行 變因에서는 성경험, 유홍장 出入이 강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父母의 飲酒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확립이 요청되며, 青少年들이 飲酒의 해독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매스컴에 의한 飲酒啓蒙教育과 學校飲酒教育이 早期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非行經驗이 친구집단과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가정과 學校에서는 연계성을 가지고 바람직한 餘暇活動 方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김정기.(1983). 비행 청소년의 범죄 양상과 음주와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의과대학.
- 민병근, 이길홍.(1979). 한국 청소년의 음주빈도 및 음주양상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중대논문집 제 23집 : 49 ~ 100.
- 민병근, 최상진, 이길홍.(1978). 오늘의 청소년 : 한국 청소년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 서울. 중앙대학교 영신아카데미연구원. 한국청소년문제 연구소.
- 尹旭.(1975). 非行青少年의 意識에 關한研究. 社會福祉研究 Vol. 4, 한국사회사업대학 : 127 ~ 151.
- 청소년대책위원회.(1985). 青少年白書. 서울. 국무총리행정조정실.
- 表申洙.(1981). 少年非行. 現代社會問題論. 金泳謨 編.
- 韓國福祉政策研究所 : 216 ~ 250.

- Bandura, A. (1977). Social-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Globetti, G. (1964). A survey of teenage drinking in two Mississippi communities, State College, Miss.: Miss. State Univ.,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Preliminary Report No.3).
- Hjelle, L.A. and Ziegler D.J. (1981). Personality Theories: Basic Assumptions, research, and Applications. New York: McGraw-Hill.
- Jesor, R., and Jessor S. (1977).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New York: Academic Press.
- Keller, M. (1974): Alcohol and health,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Co.
- Kong, M.H. (1984). Sex Differences and Adolescent Drink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 MacAndrew, C. and Edgerton R.B. (1969). Drunken comportment: A social explanation. Chicago: Aldine.
- Maddox, G.L. (1964). Adolescence and alcohol. In McCarty, R.G. (ed.), Alcohol education for classroom and community. New York: McGraw-Hill.
- Maddox, G.L. and McCall B.C. (1964). Drinking among teenagers: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of alcohol use by high-school students (Monogr. No.4). New Brunswick, N.J.: Rutgers Center of Alcohol Studies.
- Maddox, G.L. and Williams J.R. (1968) Drinking behavior of Negro collegians.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29:117-129.
- Mead M. and Metraux R. (1980) Aspects of the Present, New York .
- McAllister A.L., Krosnick, J.A. and Milburn M.A. (1984) Causes of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Test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47, No.1: 24-36.
- McClelland, D.C. and Wilsnack S.C. (1972). The effects of drinking on thoughts about power and restrain. In D.C. McClelland, W.N. Davis, R. Kalin, and E. Wanner (eds.), The drinking man: Alcohol and human motivation. New York: Free Press.
- McClelland, D.C. and Davis W. (1972) The influence of unrestrained power concerns on drinking in working-class men. In D.C. McClelland, W.N. Davis, R. Kalin, and E. Wanner (eds.), The drinking man: Alcohol and human motivation. New York: Free Press.
- McCord, W. and McCord J. (1960). Origins of alcoholism. Stanford, Calif.: Stanford Univ. Press.
- Mischel, W. (1973) Toward a cognitive social learning reconceptualization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80:252-83.
- Mulford, H.A. and Miller D.E. (1960) Drinking in Iowa. II: The extent of drinking and selected sociocultural categories.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21:26-39.
- Rachal, J.V., Williams, J.R. Brchm, M.L. Caranough, B. Moore, R.P. and Eckerman W.C.(1975). A national study of adolescent drinking behavior, attitudes and correlates. Research Triangle Park, N.C.: Research Triangle Institute.
- Rogers, C. (1968). Graduate education in psychology: A passionate statement. In W. Bennis, E. Schein and D. Berlew (eds.), Interpersonal dynamics. Homewood, Ill: Dorsey Press.
- Snow, R.W. (1975). Spatial dimensions of drinking behavior: An application of symbolic interaction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Sommer, R. (1965). The isolated drinker in the Edmonton Beer Parlor.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26:95-110.
- Wilsnack, S.C. (1973). Sex-role identity in female alcoholism.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2:253-261.
- Zucker, R.A. (1979). Developmental Aspects of Drinking through the Young Adult years. In H.T. Blane and M.E. Chafetz (eds.), Youth, Alcohol, and Social Policy. New York and London: Plenum Press.